



宿屋 玉田屋

宿屋は町の出入口に多くありました。現在、この付近で残っているのはこの一軒のみで、往時をしのぶことができます。

Tamadaya Inn

In the past, there were many inns at both ends of the town. Tamadaya Inn is the only inn that remains in the vicinity today, a reminder of the olden days.

Estalagem Tamadaya

Na entrada da cidade existiam muitas estalagens. Atualmente, esta é a única remanescente nas proximidades. Ela faz evocar os tempos passados.

旅馆 玉田屋

城镇出入口曾经有很多旅馆。目前这附近仅剩这一家，可以追忆当时的情景。

숙박시설 다마다야

숙박시설은 마을 어귀에 다수 자리잡고 있었습니다. 현재 이 부근에 남아있는 건물은 여기 하나만입니다. 당대 모습을 머리 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.